

전 결혼의 질, 이혼장애요인,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이혼 후 적응: -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-

한 경 혜(서울대학교 교수) · 손 정 연(서울대학교 석사과정)

이혼은 다측면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개인이 어떠한 이혼 과정을 경험하였는지에 따라 이혼 후 적응수준이 달라진다. 따라서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찰함에 있어 어떠한 결혼생활 끝에 발생한 이혼인지, 이혼을 생각하면서도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요인들로 인해 망설이게 되었는지, 그리고 이혼 후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 등 과정적 특성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. 또한, 이혼의 과정에서 남녀가 겪는 경험이 같지 않으므로 이러한 이혼 과정상의 경험이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. 따라서 본 연구는 이혼한 성인남녀의 이혼 전 결혼의 질, 이혼 고려시 이혼장애요인의 지각정도, 이혼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경험이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.

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이혼경험이 있는 남녀 355명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를 통해 이혼 전 결혼의 질, 이혼 고려시 이혼장애요인, 이혼 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이혼 후 적응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. 이 자료는 기술통계, t-검증, 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,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. 첫째,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지난 결혼생활을 좋게 평가하였고, 이혼 고려시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장애로 지각하는 비율이 높았다. 남성이 이혼 후 사회적 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이혼 후 경제적 문제 및 가족관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. 둘째, 이혼에 대한 후회정도와 자긍심으로 측정된 이혼 후 적응수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이혼에 대한 후회정도가 높았고, 자긍심에서는 남녀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. 셋째,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중회귀 분석한 결과, 남성의 경우, 지난 결혼생활을 좋게 평가할수록 이혼 후 가족관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정도가 높을수록 이혼에 대한 후회정도가 높았다. 이혼 후 삶에 대한 염려를 장애요인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이혼 후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정도가 높을수록 남성의 자긍심은 낮아졌다. 여성의 경우, 지난 결혼생활을 좋게 평가할수록 이혼 후 사회적 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정도가 높을수록 이혼에 대한 후회정도가 높았고, 이혼 후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정도가 높을수록 자긍심은 낮아졌다.

결론을 내리면, 전 결혼의 질, 이혼 장애 요인, 일상생활 스트레스, 이혼 후 적응수준에서 남녀간 차이가 나타났다. 또한, 이혼과정에서 겪는 경험은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, 여기에서 남녀간 유사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나타났다. 남녀 모두 이혼 전 결혼의 질이 이혼에 대한 후회정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, 이혼 후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가 자긍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. 이혼 장애 요인은 남성의 자긍심에만 관련되어 있었고, 가족관련 문제 및 사회적 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가 이혼 후 적응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.